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8-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함영진 · 추병주 · 최항석 · 박성준 · 류진아

【책임연구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지방화의 진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추병주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최항석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박성준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석	7· 1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9· 1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3· 2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62
제3장 언어발달 사업 분석	54
제1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7· 4
제2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1· 5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35
제4장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분석	7· 6
제1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9· 6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3· 7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67
제5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석	5· 9
제1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7· 9
제2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1· 0 1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3
제6장 결론	109

표 목차

<표 1-1>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구간 파악 한계점	0	1
<표 1-2>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1	1
<표 1-3>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	1
<표 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9	1
<표 2-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0	2
<표 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0	2
<표 2-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1	2
<표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1	2
<표 2-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2	2
<표 2-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2	2
<표 2-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3)	2	2
<표 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4)	2	2
<표 2-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5	2	2
<표 2-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5)	2	2
<표 2-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6	2
<표 2-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7	2
<표 2-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7	2
<표 2-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8	2
<표 2-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9	2
<표 2-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0	3
<표 2-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1	3
<표 2-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2	3
<표 2-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3	3
<표 2-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4	3
<표 2-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5	3
<표 2-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6	3
<표 2-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7	3
<표 2-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8	3
<표 2-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9	3
<표 2-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0	4

<표 2-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1	4
<표 2-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2	4
<표 2-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3	4
<표 3-1>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7	4
<표 3-2>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8	4
<표 3-3>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8	4
<표 3-4>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9	4
<표 3-5>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9	4
<표 3-6>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0	5
<표 3-7>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0	5
<표 3-8>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1	5
<표 3-9>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2	5
<표 3-10>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2	5
<표 3-11>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3	5
<표 3-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4	5
<표 3-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4	5
<표 3-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4	5
<표 3-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5	5
<표 3-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6	5
<표 3-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7	5
<표 3-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7	5
<표 3-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8	5
<표 3-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9	5
<표 3-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9	5
<표 3-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0	6
<표 3-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1	6
<표 3-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1	6
<표 3-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2	6
<표 3-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3	6
<표 3-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3	6
<표 3-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4	6

<표 3-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5	6
<표 3-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5	6
<표 4-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9	6
<표 4-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0	7
<표 4-3>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0	7
<표 4-4>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1	7
<표 4-5>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1	7
<표 4-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2	7
<표 4-7>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2	7
<표 4-8>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7
<표 4-9>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7
<표 4-10>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5	7
<표 4-1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7
<표 4-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6	7
<표 4-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7	7
<표 4-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7	7
<표 4-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8	7
<표 4-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9	7
<표 4-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0	8
<표 4-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1	8
<표 4-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2	8
<표 4-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3	8
<표 4-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4	8
<표 4-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5	8
<표 4-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6	8
<표 4-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7	8
<표 4-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8	8
<표 4-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9	8
<표 4-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0	9
<표 4-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1	9
<표 4-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2	9

<표 4-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3..... 9
<표 5-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7..... 9
<표 5-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8..... 9
<표 5-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8..... 9
<표 5-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9..... 9
<표 5-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9..... 9
<표 5-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0.....0..... 1
<표 5-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0.....0..... 1
<표 5-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1
<표 5-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	1
<표 5-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0.....	1
<표 5-1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	1
<표 5-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301
<표 5-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301
<표 5-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301
<표 5-15>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1)	4.....0..... 1
<표 5-16>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5.....0..... 1
<표 5-17>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5.....0..... 1
<표 5-18>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6.....0..... 1
<표 5-19>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2)	6.....0..... 1
<표 5-20>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7.....0..... 1
<표 5-21>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7.....0..... 1
<표 5-22>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8.....0..... 1
<표 6-1> 연구 주제와 내용	111
<표 6-2>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2.....1..... 1
<표 6-3>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2.....1..... 1
<표 6-4>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3.....1..... 1
<표 6-5>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4.....1..... 1
<표 6-6>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5.....1..... 1
<표 6-7>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6.....1..... 1
<표 6-8>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6.....1..... 1

<표 6-9>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7	1	1
<표 6-10>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8	1	1
<표 6-11> 언어발달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8	1	1
<표 6-12>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9	1	1
<표 6-13>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0	2	1
<표 6-14>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0	2	1
<표 6-15>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1	2	1
<표 6-16>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2	2	1
<표 6-1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조정안(1)	2	2	1
<표 6-1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조정안(2)	3	2	1

그림 목차

[그림 1-1] 장애인활동지원 정책변화 모의실험 프로세스	5	1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복지급여 자격판정과 경제력 평가방식은 간단명료하여, 복지담당자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유용성이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기준선과 본인부담금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함.
 - '18.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기준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화 하는 현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판정방식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복지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변동이 불가피 하고, 이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판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 부담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준중위소득 변환, (2)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3)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모의계산 실행
 -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면밀한 특성분석(급여량, 이용률,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와 추

가급여에 대한 단일 급여체계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수행함.

-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장애인 대상 바우처사업의 기준중위소득 방식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개편과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효율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변화 및 기준을 산정함.

2.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의 대상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기준중위소득 변환, (2)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3)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한 새로운 조정안들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의 건강보험료는 하향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변동은 아니지만 본인부담금 등급이 하향하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및 재산보유자의 등급전환이 크게 나타남.
- 빈도는 높지 않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등급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기존 월평균 50% 이하계층의 기준중위 급여기준선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월평균(50%, 100%, 150%)에서 중위소득(60%, 120%, 180%)으로 변환 시 소득 파악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급여선(60%, 65%, 70%) 판단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자(2,072명) 빈도가 증가하였고, 150% 이하 이용자(1,576명) 규모는 감소하였음.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50/100/150으로 변환한 경우, 기존

- 월평균 5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50%로 변동 시 3,118명(20.4%) 상향, 100%이하는 5,672명 상향(24.8%), 150%이하는 3,714명(30.4%) 상향됨.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0/120/180의 (조정안 1)은 기존 50% 이하 계층은 326명(2.1%) 상향, 100% 이하는 570명(2.5%) 상향, 150% 이하는 288명(2.4%) 상향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강함.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5/120/180의 (조정안 2)는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65%에 공존하며, 100% 이하는 570명(2.5%) 상향, 2,779명(12.1%)는 하향함.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70/120/180의 (조정안 2)은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70%에 공존하며, 100% 이하의 하향은 5,007명(21.9%)로 크게 나타났음. 기존 100%이하 계층의 하향 추세가 큼.
- 언어발달서비스 이용자의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 보면, 50% 이하 이용자(8명) 빈도가 감소하였고, 100% 초과 이용자(11명) 규모는 감소함.
-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50/100/100초과의 경우 기존 월평균 5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50%로 변동 시 31명(21.1%) 상향, 100%이하 50명 상향(21%)됨. 이에 비해 하향추세는 낮음.
 -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60/120/120초과의 (조정안 1)에서는 기존 50% 이하 계층은 2명(1.4%) 상향, 100% 이하는 5명(2.1%) 상향하지만, 100% 초과계층은 18명(22%) 하향함.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큼.
 -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65/120/120초과의 (조정안 2)에서는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65%에 공존하며, 100% 이하는 5명(2.1%) 상향하지만, 16명(6.7%)는 하향하고, 100% 초과도 18명(22%)가 하향함.
 -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70/120/120초과의 (조정안 3)에서는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70%에 공존하며, 100% 이하의 하향은 45명(18.9%)로 나타났음.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자 소득변화 분석을 위하여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00% 이하 이용자(112명) 빈도가 증가하였고, 100% 초과 이용자는 112명이 감소함.
- 건강보험료 하향이 예측되며, 대상자의 하향 규모 확대가 예측됨.
- 전국가구평균 100이하/100초과 → 기준중위 100이하/100초과의 (조정안 1)에서는 기존 월평균 10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100%로 변동 시 331명(11.6%) 상향, 100%초과는 67명(9.3%) 하향됨.
- 전국가구평균 100/100초과 → 기준중위 120/120초과의 (조정안 2)에서는 기존 100% 이하 계층은 중위 120%에 2,833명(99%)공존하지만, 28명(1%)는 상향함. 기존 100% 초과는 178명(24.6%) 하향함.

3. 결론 및 시사점

- 건강보험료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
 -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인한 문제도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수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향후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함.
 - 2차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인 활용이나 새로운 소득 재산 조사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등급 변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지원등급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등급 일시 유예 고려
 - 지원등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 민원발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동은 불가피함. 새로운 급여기준은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수급여부 및 지원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감소시키고 제도 변화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수급권한 및 지원등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의 사례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 가구에 대해 기존의 보험료를 일정기간동안 유지시켜 주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비율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지원등급 변동은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의 변동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변경(하향조정)하는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은 장애인활동지원 재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 변경에 따른 세밀한 변동분석이 필요
-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은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측면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의 통합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주요용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제 1 장 서론

-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복지급여 자격판정과 경제력 평가방식은 간단명료하여, 복지담당자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유용성이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1단계 4년 시행('18.7월~'22.6월) 이후 2단계 개편안 시행('22.7월~)될 예정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판정이 불가하여 변별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에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여 지역가입자의 하위 35.5%까지 최저보험료(13,100원) 이하 적용될 것임.
 - 2022년부터는 지역가입자 약54%가 동일한 최저보험료(17,410원)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대상자 판정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기준선과 본인부담금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함.
 - '18.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기준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차등화 하는 현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가입자 하위 35% 가량에게 동일한 금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2017년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19년 이후 장애

인 활동지원제도 및 발달재활서비스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1-1>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구간 파악 한계점

시기	구 분	건강보험료 판정 불가 소득구간('17년 기준 예측)
1단계 개편 (‘18.7.)	1인 가구 이상 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110~120%미만까지 최저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곤란
	2인 가구 이상 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65%미만까지는 최저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곤란
2단계 개편 (‘22.7.)	1인 가구 이상 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150%미만까지는 최저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곤란
	2인 가구 이상 사업	'17년도 기준중위소득 약95%미만까지는 최저보험료로 판정되는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 →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 곤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복지급여 선정기준으로 활용 문제 발생

- 2000년 초 모자보건사업, 특히 사회서비스 시행 이후부터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복지부에서는 24개 사업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에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부과,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소득판정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지역가입자의 하위 35.5%까지 최저보험료(13,100원) 이하 적용될 것이며, 1인 가구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10~120%까지 건강보험료가 동일하여 현행 방식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022년부터는 지역가입자 약 54%가 동일한 최저보험료(17,410원)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대상자 판정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 경감,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과 저소득층 경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이는 ‘개편 건강보험료 산정액’ 대비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즉,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의 당분간 이용이 가능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필요

○ 2019년 7월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으로 현행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어지게 되어 본인 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의 급여량은 기본급여(장애인의 신체기능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와 추가급여(장애인의 생활환경)를 합한 수치이지만 향후 단일 급여산식(장애인의 신체기능 및 환경특성 등)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음.

<표 1-2>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기본급여	추가급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없음
평균소득 50% 이하	기본급여의 6%	추가급여의 2%
평균소득 100% 이하	기본급여의 9%	추가급여의 3%
평균소득 150% 이하	기본급여의 12%	추가급여의 4%
평균소득 150% 초과	기본급여의 15%	추가급여의 5%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판정방식을 위한 방안 모색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복지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변동이 불가피 하고,

이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판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 부담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 건강보험료 개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바우처 사업의 정책동향 분석

- 2018년 7월부터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정책분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단일급여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책분석

□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및 장애아양육지원 사업의 이력정보 분석

-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이용자 데이터 추출을 위한 분석표 도출
- 장애인 대상 주요 바우처 사업의 이용자 특성분석 및 건강보험료 개편결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 마련

<표 1-3>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구분	내용
1.이용자 가구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ID, 성별, 연령, 서비스이용자 거주지 상세주소, 소득수준, 수급유무,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 타 서비스 이용 여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타복지급여 수혜 여부(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연금, 기초연금), 사례관리 수혜 여부
2.바우처 금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한도기본금액, 월한도추가금액, 본인부담금액, 추가본인부담금액, 결제금액, 결제건수, 서비스이용기간, 서비스중지사유
3.서비스 이용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이용 구분, 서비스코드, 이용기관명, 서비스 이용기관 주소(시도, 시군구)
4.서비스 제공인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서비스제공자 거주지(시도, 시군구)

□ 기준중위소득의 전환 의결에 따른 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준(안) 분석

-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준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동 시 발생하는 기준변동 설정 및 급여기준 마련
-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 대상 바우처 이용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현행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등)를 연계한 데이터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적용방안 모색
- 즉, 그간 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준 잣대로 활용되어 오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변동하였을 때 발생하는 급여기준선을 검토하고, 특히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야기되는 선정기준 변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후 급여기준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편방안 검토

-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변환 시 야기되는 급여기준 간 급여량 및 요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함.
- ① 개편 건강보험료 활용, ② 차상위 및 장애연금 자격기준을 활용한 판정방식, ③ 장애인 활동보조에 특화된 소득인정액 판정방식 등 다양한 정책대안 검토
-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전략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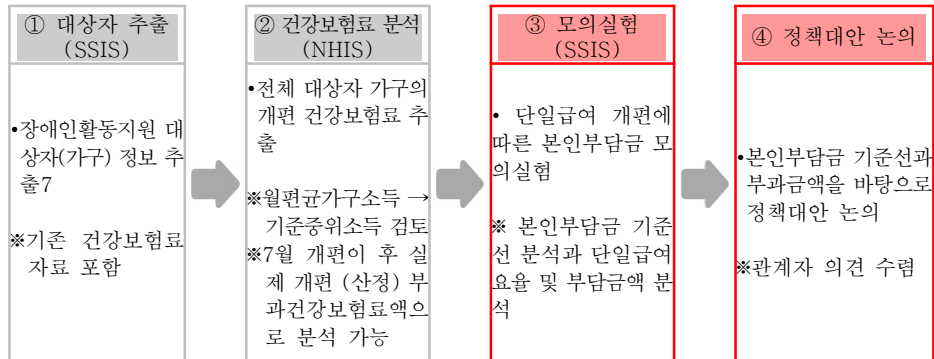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기준선, 적용요율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장애인활동지원 개편대안을 중심으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미세 조정

3. 연구흐름 및 방법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바우처 사업의 판정기준과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초래됨.
 -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판정기준과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화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기준변경에 따른 과급효과 분석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기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화와 판정기준 변화에 따른 수급자 유동성 분석이 필요하고,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준중위소득 변환, (2)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3)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모의계산 실행
 -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면밀한 특성분석(급여량, 이용률,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단일 급여체계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수행함.
 -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기준중위소득 방식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개편과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효율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변화 및 기준을 산정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은 정성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함.
 -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그림 1-1] 장애인활동지원 정책변화 모의실험 프로세스



□ 2017년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기준중위소득 체계를 반영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 그간 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선정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의 개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의 이용자 정보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 마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운영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안정화에 기여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적정기준과 부담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파급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사업운영의 안정화에 기여

○ 장애인활동지원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단일급여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실

효성 있는 대안 마련

-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기초 자료 마련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제 2 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석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석 <

<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6월과 7월 모두 4인 가구의 비율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비율이 21.1%로 높게 나타났음.

<표 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인	9,091	12.9	12.9	1인	9,103	12.9	12.9
2인	7,933	11.3	24.1	2인	7,939	11.3	24.2
3인	14,845	21.1	45.2	3인	14,849	21.1	45.2
4인	26,483	37.6	82.8	4인	26,475	37.6	82.8
5인	9,388	13.3	96.1	5인	9,381	13.3	96.1
6인	2,078	2.9	99.0	6인	2,073	2.9	99.0
7인	505	0.7	99.8	7인	505	0.7	99.8
8인	136	0.2	99.9	8인	135	0.2	99.9
9인	33	0.0	100.0	9인	32	0.0	100.0
10인	5	0.0	100.0	10인	5	0.0	100.0
합계	70,497	100.0		합계	70,497	100.0	
평균	3.40			평균	3.4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 비율이 6월 63.6%, 7월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6월 21.3%, 7월 21.5%, 혼합가입자 유형(직장+지역)는 6월 15.1%, 7

월 15.7%로 나타났음.

<표 2-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직장	44,858	63.6	63.6	직장	44,228	62.7	62.7
지역	14,989	21.3	84.9	지역	15,178	21.5	84.3
혼합	10,650	15.1	100.0	혼합	11,091	15.7	100.0
합계	70,497	100.0		합계	70,497	10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65,692원, 중위값은 133,44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4,333,640원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7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62,516원, 중위값은 125,92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4,998,530원으로 나타났음.

<표 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구분	N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6월 건강보험료	70,497	165,692	133,440	0	4,333,640
7월 건강보험료	70,497	162,516	125,920	0	4,998,53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65,749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3,121,08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117,533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2,164,22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233,231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4,333,640원으로 나타났음.

<표 2-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44,858	165,749	154,919	0	3,121,080
지역	14,989	117,533	105,916	0	2,164,220
혼합	10,650	233,231	190,433	3,660	4,333,640
합계	70,497	165,692	155,938	0	4,333,64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67,065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3,780,93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101,505원, 최솟값은 119,209원, 최댓값은 2,649,23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227,874원, 최솟값은 13,100원, 최댓값은 4,998,530원으로 나타났음.
- 6월과 비교하면 지역 및 혼합가입자 유형 유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감소하였고, 최댓값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혼합가입자 유형의 최솟값이 증가하였음.

<표 2-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44,228	167,065	160,697	0	3,780,930
지역	15,178	101,505	119,209	0	2,649,230
혼합	11,091	227,874	211,820	13,100	4,998,530
합계	70,497	162,516	166,748	0	4,998,53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도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150%초과(D)가 35.4%로 높게 나타났음.

<표 2-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전체
직장	10,059	13,850	10,470	10,479	44,858
	22.4%	30.9%	23.3%	23.4%	100.0%
지역	2,919	6,537	3,151	2,382	14,989
	19.5%	43.6%	21.0%	15.9%	100.0%
혼합	1,172	2,760	2,952	3,766	10,650
	11.0%	25.9%	27.7%	35.4%	100.0%
전체	14,150	23,147	16,573	16,627	70,497
	20.1%	32.8%	23.5%	23.6%	100.0%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0% 이하(A)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150%초과(D)가 33.0%로 높게 나타났음.

○ 7월 건강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와 상응하여, 특히 지역가입자 유형의 본인부담 등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전체
직장	9,835	13,567	10,400	10,426	44,228
	22.2%	30.7%	23.5%	23.6%	100.0%
지역	3,820	6,999	2,270	2,089	15,178
	25.2%	46.1%	15.0%	13.8%	100.0%
혼합	1,479	3,033	2,920	3,659	11,091
	13.3%	27.3%	26.3%	33.0%	100.0%
전체	15,134	23,599	15,590	16,174	70,497
	21.5%	33.5%	22.1%	22.9%	100.0%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4,150명에서 15,134가구로 증가(+984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3,147가구에서 23,599가구로 증가(+452)하였음.

○ 101-150% 이하 이용 가구는 16,573가구에서 15,590가구로 감소(-983가구)하였고, 150% 초과 이용 가구는 16,627가구에서 16,174가구로 감소(-453)하였음.

○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평균소득 100% 이하 이용 가구 수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의 이용 가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4,150	20.1	20.1	50 이하 (A)	15,134	21.5	21.5
51-100 (B)	23,147	32.8	52.9	51-100 (B)	23,599	33.5	54.9
101-150 (C)	16,573	23.5	76.4	101-150 (C)	15,590	22.1	77.1
150 초과 (D)	16,627	23.6	100.0	150 초과 (D)	16,174	22.9	100.0
합계	70,497	100.0		합계	70,497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1,145가구에서 12,206가구로 증가(+1,061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1,125가구에서 21,900가구로 증가(+775가구)하였음.

- 101-150% 이하 이용 가구는 16,731가구에서 15,558가구로 감소(-1,173명)하였고, 150% 초과 이용 가구는 21,496가구에서 20,833가구로 감소(-663명)하였음.
- 평균소득 분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용자 수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1,145	15.8	15.8	50 이하 (A)	12,206	17.3	17.3
51-100 (B)	21,125	30.0	45.8	51-100 (B)	21,900	31.1	48.4
101-150 (C)	16,731	23.7	69.5	101-150 (C)	15,558	22.1	70.4
150 초과 (D)	21,496	30.5	100.0	150 초과 (D)	20,833	29.6	100.0
합계	70,497	100.0		합계	70,497	100.0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개편 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 A에서 집단 B로 1,347가구(9.5%), 집단 C로 126가구(0.9%), 집단 D로 74가구(0.5%)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647가구(2.8%), 집단 D로 134가구(0.6%)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C에서 집단 D로 462가구(2.8%)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2,345가구(10.1%)이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2,098가구(12.7%), 집단 A로 141가구(0.9%)가 하향, 집단 D에서 집단 C로 945가구(5.7%), 집단 B로 133가구(0.8%), 집단 A로 45가구(0.3%)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개편 전	50 이하(A)	12,603	1,347	126	74	14,150
		89.1%	9.5%	.9%	.5%	100.0%
	51-100(B)	2,345	20,021	647	134	23,147
		10.1%	86.5%	2.8%	.6%	100.0%
	101-150(C)	141	2,098	13,872	462	16,573
		0.9%	12.7%	83.7%	2.8%	100.0%
	150 초과(D)	45	133	945	15,504	16,627
		0.3%	0.8%	5.7%	93.2%	100.0%
전체		15,134	23,599	15,590	16,174	70,497
		21.5%	33.5%	22.1%	22.9%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집단 A에서 집단 B로 1,246가구(11.2%), 집단 C로 136가구(1.2%), 집단 D로 94가구(0.8%)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583가구(2.8%), 집단 D로 148가구(0.7%)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C에서 집단 D로 560가구(3.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2,300가구(10.9%)이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2,384가구(14.2%), 집단 A로 177가구(1.1%)가 하향, 집단 D에서 집단 C로 1,229가구(5.7%), 집단 B로 176가구(0.8%), 집단 A로 60가구(0.3%)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변화와 기준중위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의 변화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 2-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개편 전	50 이하(A)	9,669	1,246	136	94	11,145
		86.8%	11.2%	1.2%	.8%	100.0%
	51-100(B)	2,300	18,094	583	148	21,125
		10.9%	85.7%	2.8%	.7%	100.0%
	101-150(C)	177	2,384	13,610	560	16,731
		1.1%	14.2%	81.3%	3.3%	100.0%
	150 초과(D)	60	176	1,229	20,031	21,496
		0.3%	0.8%	5.7%	93.2%	100.0%
전체		12,206	21,900	15,558	20,833	70,497
		17.3%	31.1%	22.1%	29.6%	100.0%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가구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할 경우 이용 가구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정확한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였음.

○ 첫째, 2018년 6월 및 7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가구 데이터 중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2-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통합데이터	비교불가능	1차정제
70,684	187	70,497

○ 둘째, 가구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였음.

<표 2-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1차정제	가구원증가	가구원감소	2차정제
70,497	154	62	70,281

○ 셋째, 건강보험 유형이 변동한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2-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2차정제	합계	직장 -지역	직장 -혼합	지역 -직장	지역 -혼합	혼합 -직장	혼합 -지역	3차정제
70,281	2,073	427	716	277	190	241	222	68,208

□ 위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68,208 가구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음.

□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환 대안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음.¹⁾²⁾

○ (대안1)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존의 평균소득 구간과 동일하게 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2)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0% 이하, 61-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3)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5% 이하, 66-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4)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70% 이하, 71-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1) 최저건강보험료 적용 등 건강보험료 개편 후 소득분위 하위구간에 있는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저 분위에 있는 구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

2) 또한 평균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였음(평균소득 10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평균소득 15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안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80.0%, 집단 B는 78.8%, 집단 C는 67.1%, 집단 D는 98.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0.8%, 하향하는 비율이 0.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1.4%, 하향하는 비율이 1.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표 2-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1,558	2,897	0	0	14,455
		80.0%	20.0%	0.0%	0.0%	100%
	51-60(B)	98	18,031	4,751	0	22,880
		0.4%	78.8%	20.8%	0.0%	100%
	61-80(C)	0	232	10,174	4,759	15,165
		0.0%	1.5%	67.1%	31.4%	100%
	80 초과(D)	0	0	199	15,509	15,708
		0.0%	0.0%	1.3%	98.7%	100%
전체		11,656	21,160	15,124	20,268	68,208
		17.1%	31.0%	22.2%	29.7%	1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82.4%, 집단 B는 75.3%, 집단 C는 67.1%, 집단 D는 98.9%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4.2%, 하향하는 비율이 0.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1.5%, 하향하는 비율이 1.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표 2-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887	1,688	0	0	9,575
		82.4%	17.6%	0.0%	0.0%	100.0%
	51-60(B)	60	10,089	3,248	0	13,397
		0.4%	75.3%	24.2%	0.0%	100.0%
	61-80(C)	0	148	6,897	3,237	10,282
		0.0%	1.4%	67.1%	31.5%	100.0%
	80 초과(D)	0	0	118	10,234	10,352
		0.0%	0.0%	1.1%	98.9%	100.0%
전체		7,947	11,925	10,263	13,471	43,606
		18.2%	27.3%	23.5%	30.9%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76.3%, 집단 B는 88.0%, 집단 C는 74.6%, 집단 D는 99.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3.7%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1.7%, 하향하는 비율이 0.3%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4%, 하향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0.6%로 나타났다.

<표 2-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2,735	848	0	0	3,583
		76.3%	23.7%	0.0%	0.0%	100.0%
	51-60(B)	19	5,897	784	0	6,700
		.3%	88.0%	11.7%	0.0%	100.0%
	61-80(C)	0	22	1,636	536	2,194
		0.0%	1.0%	74.6%	24.4%	100.0%
	80 초과(D)	0	0	12	1,982	1,994
		0.0%	0.0%	0.6%	99.4%	100.0%
전체		2,754	6,767	2,432	2,518	14,471
		19.0%	46.8%	16.8%	17.4%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72.2%, 집단 B는 73.5%, 집단 C는 61.0%, 집단 D는 97.9%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7.8%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8%, 하향하는 비율이 0.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6.7%, 하향하는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1%로 나타났다.

<표 2-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36	361	0	0	1,297
		72.2%	27.8%	0.0%	0.0%	100.0%
	51-60(B)	19	2,045	719	0	2,783
		.7%	73.5%	25.8%	0.0%	100.0%
	61-80(C)	0	62	1,641	986	2,689
		0.0%	2.3%	61.0%	36.7%	100.0%
	80 초과(D)	0	0	69	3,293	3,362
		0.0%	0.0%	2.1%	97.9%	100.0%
전체		955	2,468	2,429	4,279	10,131
		9.4%	24.4%	24.0%	42.2%	100.0%

□ 대안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98.0%, 집단 B는 92.9%, 집단 C는 78.7%, 집단 D는 87.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7%, 하향하는 비율이 5.3%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18.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8%로 나타났다.

<표 2-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162	293	0	0	14,455
		98.0%	2.0%	0.0%	0.0%	100.0%
	51-60(B)	1,219	21,265	396	0	22,880
		5.3%	92.9%	1.7%	0.0%	100.0%
	61-80(C)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0%
	80 초과(D)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0%
전체		15,381	24,390	14,335	14,102	68,208
		22.6%	35.8%	21.0%	20.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8.2%, 집단 B는 91.9%, 집단 C는 79.7%, 집단 D는 88.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0%, 하향하는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7.9%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났다.

<표 2-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406	169	0	0	9,575
		98.2%	1.8%	0.0%	0.0%	100.0%
	51-60(B)	815	12,318	264	0	13,397
		6.1%	91.9%	2.0%	0.0%	100.0%
	61-80(C)	0	1,844	8,193	245	10,282
		0.0%	17.9%	79.7%	2.4%	100.0%
	80 초과(D)	0	6	1,223	9,123	10,352
		0.0%	0.1%	11.8%	88.1%	100.0%
전체		10,221	14,337	9,680	9,368	43,606
		23.4%	32.9%	22.2%	21.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7.6%, 집단 B는 95.4%, 집단 C는 72.6%, 집단 D는 82.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9%, 하향하는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9%, 하향하는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표 2-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3,496	87	0	0	3,583
		97.6%	2.4%	0.0%	0.0%	100.0%
	51-60(B)	245	6,393	62	0	6,700
		3.7%	95.4%	0.9%	0.0%	100.0%
	61-80(C)	0	539	1,592	63	2,194
		0.0%	24.6%	72.6%	2.9%	100.0%
	80 초과(D)	0	1	350	1,643	1,994
		0.0%	0.1%	17.6%	82.4%	100.0%
전체		3,741	7,020	2,004	1,706	14,471
		25.9%	48.5%	13.8%	11.8%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7.1%, 집단 B는 91.8%, 집단 C는 80.2%, 집단 D는 87.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5.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4%, 하향하는 비율이 16.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표 2-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260	37	0	0	1,297
		97.1%	2.9%	0.0%	0.0%	100.0%
	51-60(B)	159	2,554	70	0	2,783
		5.7%	91.8%	2.5%	0.0%	100.0%
	61-80(C)	0	441	2,157	91	2,689
		0.0%	16.4%	80.2%	3.4%	100.0%
	80 초과(D)	0	1	424	2,937	3,362
		0.0%	0.0%	12.6%	87.4%	100.0%
전체		1,419	3,033	2,651	3,028	10,131
		14.0%	29.9%	26.2%	29.9%	100.0%

□ 대안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6.6%, 집단 C는 78.7%, 집단 D는 87.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7%, 하향하는 비율이 11.6%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18.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8%로 나타났다.

<표 2-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455	0	0	0	14,455
		100.0%	0.0%	0.0%	0.0%	100.0%
	51-60(B)	2,663	19,821	396	0	22,880
		11.6%	86.6%	1.7%	0.0%	100.0%
	61-80(C)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0%
	80 초과(D)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0%
전체		17,118	22,653	14,335	14,102	68,208
		25.1%	33.2%	21.0%	20.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4.6%, 집단 C는 79.7%, 집단 D는 88.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0%, 하향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7.9%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났다.

<표 2-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575	0	0	0	9,575
		100.0%	0.0%	0.0%	0.0%	100.0%
	51-60(B)	1,805	11,328	264	0	13,397
		13.5%	84.6%	2.0%	0.0%	100.0%
	61-80(C)	0	1,844	8,193	245	10,282
		0.0%	17.9%	79.7%	2.4%	100.0%
	80 초과(D)	0	6	1,223	9,123	10,352
		0.0%	0.1%	11.8%	88.1%	100.0%
전체		11,380	13,178	9,680	9,368	43,606
		26.1%	30.2%	22.2%	21.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91.0%, 집단 C는 72.6%, 집단 D는 82.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9%, 하향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9%, 하향하는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표 2-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3,583	0	0	0	3,583
		100.0%	0.0%	0.0%	0.0%	100.0%
	51-60(B)	543	6,095	62	0	6,700
		8.1%	91.0%	0.9%	0.0%	100.0%
	61-80(C)	0	539	1,592	63	2,194
		0.0%	24.6%	72.6%	2.9%	100.0%
	80 초과(D)	0	1	350	1,643	1,994
		0.0%	0.1%	17.6%	82.4%	100.0%
전체		4,126	6,635	2,004	1,706	14,471
		28.5%	45.9%	13.8%	11.8%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6.2%, 집단 C는 80.2%, 집단 D는 87.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11.3%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4%, 하향하는 비율이 16.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표 2-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297	0	0	0	1,297
		100.0%	0.0%	0.0%	0.0%	100.0%
	51-60(B)	315	2,398	70	0	2,783
		11.3%	86.2%	2.5%	0.0%	100.0%
	61-80(C)	0	441	2,157	91	2,689
		0.0%	16.4%	80.2%	3.4%	100.0%
	80 초과(D)	0	1	424	2,937	3,362
		0.0%	0.0%	12.6%	87.4%	100.0%
전체		1,612	2,840	2,651	3,028	10,131
		15.9%	28.0%	26.2%	29.9%	100.0%

□ 대안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8.0%, 집단 C는 78.7%, 집단 D는 87.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7%, 하향하는 비율이 20.2%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18.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8%로 나타났다.

<표 2-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455	0	0	0	14,455
		100.0%	0.0%	0.0%	0.0%	100.0%
	51-60(B)	4,632	17,852	396	0	22,880
		20.2%	78.0%	1.7%	0.0%	100.0%
	61-80(C)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0%
	80 초과(D)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0%
전체		19,087	20,684	14,335	14,102	68,208
		28.0%	30.3%	21.0%	20.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5.8%, 집단 C는 79.7%, 집단 D는 88.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0%, 하향하는 비율이 22.2%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7.9%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났다.

<표 2-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575	0	0	0	9,575
		100.0%	0.0%	0.0%	0.0%	100.0%
	51-60(B)	2,980	10,153	264	0	13,397
		22.2%	75.8%	2.0%	0.0%	100.0%
	61-80(C)	0	1,844	8,193	245	10,282
		0.0%	17.9%	79.7%	2.4%	100.0%
	80 초과(D)	0	6	1,223	9,123	10,352
		0.0%	0.1%	11.8%	88.1%	100.0%
전체		12,555	12,003	9,680	9,368	43,606
		28.8%	27.5%	22.2%	21.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3.1%, 집단 C는 72.6%, 집단 D는 82.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9%, 하향하는 비율이 16.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9%, 하향하는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표 2-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3,583	0	0	0	3,583
		100.0%	0.0%	0.0%	0.0%	100.0%
	51-60(B)	1,073	5,565	62	0	6,700
		16.0%	83.1%	0.9%	0.0%	100.0%
	61-80(C)	0	539	1,592	63	2,194
		0.0%	24.6%	72.6%	2.9%	100.0%
	80 초과(D)	0	1	350	1,643	1,994
		0.0%	0.1%	17.6%	82.4%	100.0%
전체		4,656	6,105	2,004	1,706	14,471
		32.2%	42.2%	13.8%	11.8%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6.7%, 집단 C는 80.2%, 집단 D는 87.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20.8%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4%, 하향하는 비율이 16.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표 2-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297	0	0	0	1,297
		100.0%	0.0%	0.0%	0.0%	100.0%
	51-60(B)	579	2,134	70	0	2,783
		20.8%	76.7%	2.5%	0.0%	100.0%
	61-80(C)	0	441	2,157	91	2,689
		0.0%	16.4%	80.2%	3.4%	100.0%
	80 초과(D)	0	1	424	2,937	3,362
		0.0%	0.0%	12.6%	87.4%	100.0%
전체		1,876	2,576	2,651	3,028	10,131
		18.5%	25.4%	26.2%	29.9%	100.0%

제 3 장

언어발달 사업 분석

제1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제2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3

언어발달 사업 분석 <

<

제1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6월과 7월 모두 4인 가구의 비율 41.2%,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비율이 31.6%로 높게 나타났음.

<표 3-1>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인	29	6.1	6.1	1인	31	6.5	6.5
2인	21	4.4	10.5	2인	21	4.4	10.9
3인	151	31.6	42.1	3인	151	31.6	42.5
4인	197	41.2	83.3	4인	196	41.0	83.5
5인	53	11.1	94.4	5인	52	10.9	94.4
6인	18	3.8	98.1	6인	18	3.8	98.1
7인	6	1.3	99.4	7인	6	1.3	99.4
8인	3	0.6	100.0	8인	3	0.6	100.0
합계	478	100.0		합계	478	100.0	
평균	3.66			평균	3.65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 비율이 6월 73.0%, 7월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6월 19.0%, 7월 20.1%, 혼합가입자 유형(직장+지역)은 6월 7.9%, 7월 8.2%로 나타났음.

<표 3-2>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직장	349	73.0	73.0	직장	343	71.8	71.8
지역	91	19.0	92.1	지역	96	20.1	91.8
혼합	38	7.9	100.0	혼합	39	8.2	100.0
합계	478	100.0		합계	478	100.0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07,142원, 중위값은 97,045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640,7880원으로 나타났다.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7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04,591원, 중위값은 98,14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707,690원으로 나타났다.

<표 3-3>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구분	N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6월 건강보험료	478	107,142	97,045	0	640,780
7월 건강보험료	478	104,591	98,140	0	707,69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07,694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351,27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79,084원, 최솟값은 3,660원, 최댓값은 314,35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69,260원, 최솟값은 12,460원, 최댓값은 640,780원으로 나타났다.

<표 3-4>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349	107,694	53,899.64	0	351,270
지역	91	79,084	74,676.90	3,660	314,350
혼합	38	169,260	124,489.45	12,460	640,780
합계	478	107,142	69,509.88	0	640,78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08,658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351,27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60,413원, 최솟값은 13,100원, 최댓값은 311,61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77,569원, 최솟값은 37,740원, 최댓값은 707,690원으로 나타났음.
- 6월과 비교하면 지역 및 혼합가입자 유형 유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였고, 최댓값은 혼합가입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지역 및 혼합가입자 유형의 최솟값이 증가하였음.

<표 3-5>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343	108,658	54,174.46	0	351,270
지역	96	60,413	64,408.33	13,100	311,610
혼합	39	177,569	133,705.32	37,740	707,690
합계	478	104,591	72,074.76	0	707,690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0%(A)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9.6%로 높게 나타났음.

<표 3-6>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50 이하(A)	51-100(B)	101-160(C)	전체
직장	97	194	58	349
	27.8%	55.6%	16.6%	100.0%
지역	47	29	15	91
	51.6%	31.9%	16.5%	100.0%
혼합	8	14	16	38
	21.1%	36.8%	42.1%	100.0%
전체	152	237	89	478
	31.8%	49.6%	18.6%	100.0%

○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0% 이하(A)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직장가입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7월 건강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와 함께, 특히 혼합가입자 유형의 본인부담 등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50 이하(A)	51-100(B)	101-160(C)	전체
직장	92	194	57	343
	26.8%	56.6%	16.6%	100.0%
지역	54	29	13	96
	56.3%	30.2%	13.5%	100.0%
혼합	5	18	16	39
	12.8%	46.2%	41.0%	100.0%
전체	151	241	86	478
	31.6%	50.4%	18.0%	100.0%

제2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52명에서 151가구로 감소(-1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37가구에서 241가구로 증가(+4가구)하였음.

○ 101-160% 이하 이용 가구는 89가구에서 86가구로 감소(-3가구)하였음.

○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평균소득 51-100% 이하 이용 가구 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의 이용 가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8>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52	31.8	31.8	50 이하 (A)	151	31.6	31.6
51-100 (B)	237	49.6	81.4	51-100 (B)	241	50.4	82.0
101-160 (C)	89	18.6	100.0	101-160 (C)	86	18.0	100.0
합계	478	100.0		합계	478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08가구에서 119가구로 증가(+11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31가구에서 230가구로 감소(-1가구)하였음.

○ 101-160% 이하 이용 가구는 139가구에서 129가구로 감소(-10명)하였음.

○ 평균소득 분포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용자 수

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08	22.6	22.6	50 이하 (A)	119	24.9	24.9
51-100 (B)	231	48.3	70.9	51-100 (B)	230	48.1	73.0
101-160 (C)	139	29.1	100.0	101-160 (C)	129	27.0	100.0
합계	478	100.0		합계	478	100.0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개편 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 A에서 집단 B로 10가구(6.6%), 집단 C로 1가구(0.7%)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3가구(1.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10가구(4.2%)가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7가구(7.9%), 집단 A로 0가구(0.0%)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전	50 이하(A)	141	10	1	152
		92.8%	6.6%	0.7%	100.0%
	51-100(B)	10	224	3	237
		4.2%	94.5%	1.3%	100.0%
	101-160(C)	0	7	82	89
		0.0%	7.9%	92.1%	100.0%
전체		151	241	86	478
		31.6%	50.4%	18.0%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집단 A에서 집단 B로 8가구(7.4%), 집단 C로 2가구(1.9%)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2가구(0.9%)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21가구(9.1%)가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14가구(10.1%), 집단 A로 0가구(0.0%)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60%)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변화와 기준중위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60%)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의 변화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 3-11> 언어발달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전	50 이하(A)	98	8	2	108
		90.7%	7.4%	1.9%	100.0%
	51-100(B)	21	208	2	231
		9.1%	90.0%	0.9%	100.0%
	101-160(C)	0	14	125	139
		0.0%	10.1%	89.9%	100.0%
전체		119	230	129	478
		24.9%	48.1%	27.0%	100.0%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 언어발달 이용 가구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할 경우 이용 가구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정확한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였음.

- 첫째, 2018년 6월 및 7월 언어발달 이용 가구 데이터 중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3-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통합데이터	비교불가능	1차정제
480	2	478

- 둘째, 가구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였음.

<표 3-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1차정제	가구원증가	가구원감소	2차정제
478	3	0	475

- 셋째, 건강보험 유형이 변동한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3-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2차정제	합계	직장 -지역	직장 -혼합	지역 -직장	지역 -혼합	혼합 -직장	혼합 -지역	3차정제
475	8	5	1	0	2	0	0	467

- 위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467 가구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음.

- 보다 면밀한 검토하기 위해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환 대안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음.³⁾⁴⁾

- (대안 1)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존의 평균소득 구간과 동일하게 50% 이하,

3) 최저건강보험료 적용 등 건강보험료 개편 후 소득분위 하위구간에 있는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저 분위에 있는 구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

4) 또한 평균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였음(평균소득 10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1-100%, 101-160%로 구분하였음.

○ (대안 2)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0% 이하, 61-120%, 12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3)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5% 이하, 66-120%, 12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4)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70% 이하, 71-120%, 12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78.9%, 집단 B는 79.0%, 집단 C는 91.5%로 나타났음.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1.1%로 나타났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1.0%,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음.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8.5%로 나타났음.

<표 3-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16	31	0	147
		78.9%	21.1%	0.0%	100.0%
	51-100(B)	0	188	50	238
		0.0%	79.0%	21.0%	100.0%
	101-160(C)	0	7	75	82
		0.0%	8.5%	91.5%	100.0%
전체		116	226	125	467
		24.8%	48.4%	26.8%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78.0%, 집단 B는 75.3%, 집단 C는 98.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2.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4.7%,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표 3-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1	20	0	91
		78.0%	22.0%	0.0%	100.0%
	51-100(B)	0	146	48	194
		0.0%	75.3%	24.7%	100.0%
	101-160(C)	0	1	56	57
		0.0%	1.8%	98.2%	100.0%
전체		71	167	104	342
		20.8%	48.8%	30.4%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84.3%, 집단 B는 100.0%, 집단 C는 100.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5.7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표 3-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43	8	0	51
		84.3%	15.7%	0.0%	100.0%
	51-100(B)	0	27	0	27
		0.0%	100.0%	0.0%	100.0%
	101-160(C)	0	0	11	11
		0.0%	0.0%	100.0%	100.0%
전체		43	35	11	89
		48.3%	39.3%	12.4%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40.0%, 집단 B는 88.2%, 집단 C는 57.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6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1.8%,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표 3-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2	3	0	5
		40.0%	60.0%	0.0%	100.0%
	51-100(B)	0	15	2	17
		0.0%	88.2%	11.8%	100.0%
	101-160(C)	0	6	8	14
		0.0%	42.9%	57.1%	100.0%
전체		2	24	10	36
		5.6%	66.7%	27.8%	100.0%

□ 대안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98.6%, 집단 B는 94.5%, 집단 C는 78.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4%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1%, 하향하는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22.0%로 나타났다.

<표 3-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5	2	0	147
		98.6%	1.4%	0.0%	100.0%
	51-100(B)	8	225	5	238
		3.4%	94.5%	2.1%	100.0%
	101-160(C)	0	18	64	82
		0.0%	22.0%	78.0%	100.0%
전체		153	245	69	467
		32.8%	52.5%	14.8%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7.8%, 집단 B는 94.8%, 집단 C는 80.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2%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19.3%로 나타났다.

<표 3-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89	2	0	91
		97.8%	2.2%	0.0%	100.0%
	51-100(B)	5	184	5	194
		2.6%	94.8%	2.6%	100.0%
	101-160(C)	0	11	46	57
		0.0%	19.3%	80.7%	100.0%
전체		94	197	51	342
		27.5%	57.6%	14.9%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88.9%, 집단 C는 90.9%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표 3-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1	0	0	51
		100.0%	0.0%	0.0%	100.0%
	51-100(B)	3	24	0	27
		11.1%	88.9%	0.0%	100.0%
	101-160(C)	0	1	10	11
		0.0%	9.1%	90.9%	100.0%
전체		54	25	10	89
		60.7%	28.1%	11.2%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100.0%, 집단 C는 57.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표 3-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	0	0	5
		100.0%	0.0%	0.0%	100.0%
	51-100(B)	0	17	0	17
		0.0%	100.0%	0.0%	100.0%
	101-160(C)	0	6	8	14
		0.0%	42.9%	57.1%	100.0%
전체		5	23	8	36
		13.9%	63.9%	22.2%	100.0%

□ 대안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91.2%, 집단 C는 78.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1%, 하향하는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22.0%로 나타났다.

<표 3-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7	0	0	147
		100.0%	0.0%	0.0%	100.0%
	51-100(B)	16	217	5	238
		6.7%	91.2%	2.1%	100.0%
	101-160(C)	0	18	64	82
		0.0%	22.0%	78.0%	100.0%
전체		163	235	69	467
		34.9%	50.3%	14.8%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86.1%, 집단 C는 82.9%, 집단 D는 79.3%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19.3%로 나타났다.

<표 3-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1	0	0	91
		100.0%	0.0%	0.0%	100.0%
	51-100(B)	13	176	5	194
		6.7%	90.7%	2.6%	100.0%
	101-160(C)	0	11	46	57
		0.0%	19.3%	80.7%	100.0%
전체		104	187	51	342
		30.4%	54.7%	14.9%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88.9%, 집단 C는 90.9%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표 3-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1	0	0	51
		100.0%	0.0%	0.0%	100.0%
	51-100(B)	3	24	0	27
		11.1%	88.9%	0.0%	100.0%
	101-160(C)	0	1	10	11
		0.0%	9.1%	90.9%	100.0%
전체		54	25	10	89
		60.7%	28.1%	11.2%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100.0%, 집단 C는 57.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표 3-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	0	0	5
		100.0%	0.0%	0.0%	100.0%
	51-100(B)	0	17	0	17
		0.0%	100.0%	0.0%	100.0%
	101-160(C)	0	6	8	14
		0.0%	42.9%	57.1%	100.0%
전체		5	23	8	36
		13.9%	63.9%	22.2%	100.0%

□ 대안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79.0%, 집단 C는 78.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1%, 하향하는 비율이 18.9%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22.2%로 나타났다.

<표 3-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7	0	0	147
		100.0%	0.0%	0.0%	100.0%
	51-100(B)	45	188	5	238
		18.9%	79.0%	2.1%	100.0%
	101-160(C)	0	18	64	82
		0.0%	22.0%	78.0%	100.0%
전체		192	206	69	467
		41.1%	44.1%	14.8%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79.4%, 집단 C는 80.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6%, 하향하는 비율이 18.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19.3%로 나타났다.

<표 3-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1	0	0	91
		100.0%	0.0%	0.0%	100.0%
	51-100(B)	35	154	5	194
		18.0%	79.4%	2.6%	100.0%
	101-160(C)	0	11	46	57
		0.0%	19.3%	80.7%	100.0%
전체		126	165	51	342
		36.8%	48.2%	14.9%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81.5%, 집단 C는 90.9%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18.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표 3-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1	0	0	51
		100.0%	0.0%	0.0%	100.0%
	51-100(B)	5	22	0	27
		18.5%	81.5%	0.0%	100.0%
	101-160(C)	0	1	10	11
		0.0%	9.1%	90.9%	100.0%
전체		56	23	10	89
		62.9%	25.8%	11.2%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0%, 집단 B는 70.6%, 집단 C는 57.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0.0%, 하향하는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하향하는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표 3-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60(C)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	0	0	5
		100.0%	0.0%	0.0%	100.0%
	51-100(B)	5	12	0	17
		29.4%	70.6%	0.0%	100.0%
	101-160(C)	0	6	8	14
		0.0%	42.9%	57.1%	100.0%
전체		10	18	8	36
		27.8%	50.0%	22.2%	100.0%

제 4 장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분석

제1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4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분석 <

<

제1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6월과 7월 모두 4인 가구의 비율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비율이 27.0%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인	1,188	2.2	2.2	1인	1,189	2.2	2.2
2인	1,986	3.6	5.8	2인	1,995	3.6	5.8
3인	14,802	27.0	32.8	3인	14,788	27.0	32.8
4인	25,190	46.0	78.8	4인	25,204	46.0	78.8
5인	8,734	15.9	94.7	5인	8,730	15.9	94.7
6인	2,197	4.0	98.7	6인	2,184	4.0	98.7
7인	526	1.0	99.7	7인	529	1.0	99.7
8인	135	0.2	99.9	8인	136	0.2	99.9
9인	28	0.1	100.0	9인	28	0.1	100.0
10인	12	0.0	100.0	10인	15	0.0	100.0
합계	54,798	100.0		합계	54,798	100.0	
평균	3.87			평균	3.87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 유형 비율이 6월 71.3%, 7월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6월 20.2%, 7월 20.5%, 혼합가입자 유형(직장+지역)은 6월 8.5%, 7월 8.7%로 나타났음.

<표 4-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직장	39,063	71.3	71.3	직장	38,813	70.8	70.8
지역	11,069	20.2	91.5	지역	11,227	20.5	91.3
혼합	4,666	8.5	100.0	혼합	4,758	8.7	100.0
합계	54,798	100.0		합계	54,798	100.0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31,225원, 중위값은 123,39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1,803,760원으로 나타났다.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7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24,223원, 중위값은 115,19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1,803,760원으로 나타났다.

<표 4-3>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구분	N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6월 건강보험료	54,798	131,225	123,390	0	1,803,760
7월 건강보험료	54,798	124,223	115,190	0	1,803,76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27,761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1,803,76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120,105원, 최솟값은 3,660원, 최댓값은 594,06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86,61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1,803,760원으로 나타났다.

<표 4-4>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39,063	127,761	73,205.00	0	1,803,760
지역	11,069	120,105	75,693.11	3,660	594,060
혼합	4,666	186,610	112,292.20	3,660	1,230,250
합계	54,798	131,225	79,659.29	0	1,803,76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28,068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1,803,76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88,754원, 최솟값은 13,100원, 최댓값은 885,88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76,543원, 최솟값은 13,100원, 최댓값은 1,719,260원으로 나타났음.
- 6월과 비교하면 지역 및 혼합가입자 유형 유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감소하였고, 최댓값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지역가입자 유형의 최솟값이 증가하였음.

<표 4-5>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38,813	128,068	73,399.03	0	1,803,760
지역	11,227	88,754	81,396.53	13,100	885,880
혼합	4,758	176,543	123,928.21	13,100	1,719,260
합계	54,798	124,223	83,739.68	0	1,803,760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도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도 마찬가지로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34.8%로 높게 나타났음.

<표 4-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전체
직장	10,048	17,296	9,828	1,891	39,063
	25.7%	44.3%	25.2%	4.8%	100.0%
지역	2,914	5,760	1,917	478	11,069
	26.3%	52.0%	17.3%	4.3%	100.0%
혼합	631	1,625	1,556	854	4,666
	13.5%	34.8%	33.3%	18.3%	100.0%
전체	13,593	24,681	13,301	3,223	54,798
	24.8%	45.0%	24.3%	5.9%	100.0%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50% 이하(A)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직장가입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 51-100%(B) 사이의 이용 가구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7월 건강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와 상응하여, 특히 지역가입자 유형의 본인부담 등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전체
직장	9,964	17,120	9,830	1,899	38,813
	25.7%	44.1%	25.3%	4.9%	100.0%
지역	5,180	4,536	1,184	327	11,227
	46.1%	40.4%	10.5%	2.9%	100.0%
혼합	860	1,758	1,383	757	4,758
	18.1%	36.9%	29.1%	15.9%	100.0%
전체	16,004	23,414	12,397	2,983	54,798
	29.2%	42.7%	22.6%	5.4%	100.0%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3,593명에서 16,004가구로 증가(+2,411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4,681가구에서 23,414가구로 감소(-1,267가구)하였음.

○ 101-150% 이하 이용 가구는 13,301가구에서 12,397가구로 감소(-904가구)하였고, 150% 초과 이용 가구는 3,223가구에서 2,983가구로 감소(-240가구)하였음.

○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평균소득 50% 이하 이용 가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의 이용 가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3,593	24.8	24.8	50 이하 (A)	16,004	29.2	29.2
51-100 (B)	24,681	45.0	69.8	51-100 (B)	23,414	42.7	71.9
101-150 (C)	13,301	24.3	94.1	101-150 (C)	12,397	22.6	94.6
150 초과 (D)	3,223	5.9	100.0	150 초과 (D)	2,983	5.4	100.0
합계	54,798	100.0		합계	54,798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 가구는 10,505가구에서 12,896가구로 증가(+2,391가구)하였고, 51-100% 이하 이용 가구는 21,761가구에서 21,086가구로 감소(-675가구)하였음.

- 101-150% 이하 이용 가구는 15,546가구에서 14,265가구로 감소(-1,281명)하였고, 150% 초과 이용 가구는 6,986가구에서 6,551가구로 감소(-435명)하였음.
- 평균소득 분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용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 이하 (A)	10,505	19.2	19.2	50 이하 (A)	12,896	23.5	23.5
51-100 (B)	21,761	39.7	58.9	51-100 (B)	21,086	38.5	62.0
101-150 (C)	15,546	28.4	87.3	101-150 (C)	14,265	26.0	88.0
150 초과 (D)	6,986	12.7	100.0	150 초과 (D)	6,551	12.0	100.0
합계	54,798	100.0		합계	54,798	100.0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개편 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 A에서 집단 B로 592가구(4.4%), 집단 C로 80가구(0.6%), 집단 D로 15가구(0.1%)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387가구(1.6%), 집단 D로 51가구(0.2%)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C에서 집단 D로 179가구(1.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2,967가구(12.0%)이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1,473가구(11.1%), 집단 A로 112가구(0.8%)가 하향, 집단 D에서 집단 C로 393가구(12.2%), 집단 B로 73가구(2.3%), 집단 A로 19가구(0.6%)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0>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개편 전	50 이하(A)	12,906	592	80	15	13,593
		94.9%	4.4%	0.6%	0.1%	100.0%
	51-100(B)	2,967	21,276	387	51	24,681
		12.0%	86.2%	1.6%	0.2%	100.0%
	101-150(C)	112	1,473	11,537	179	13,301
		0.8%	11.1%	86.7%	1.3%	100.0%
	150 초과(D)	19	73	393	2,738	3,223
		0.6%	2.3%	12.2%	85.0%	100.0%
전체		16,004	23,414	12,397	2,983	54,798
		29.2%	42.7%	22.6%	5.4%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집단 A에서 집단 B로 540가구(5.1%), 집단 C로 114가구(1.1%), 집단 D로 29가구(0.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C로 390가구(1.8%), 집단 D로 70가구(0.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C에서 집단 D로 262가구(1.7%)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집단 B에서 집단 A로 2,891가구(13.3%)이 하향, 집단 C에서 집단 B로 2,014가구(13.0%), 집단 A로 147가구(0.8%)가 하향, 집단 D에서 집단 C로 638가구(9.1%), 집단 B로 122가구(1.7%), 집단 A로 36가구(0.5%)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변화와 기준중위소득 기준(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의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의 변화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 4-1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개편 후				전체
		50 이하(A)	51-100(B)	101-150(C)	150 초과(D)	
개편 전	50 이하(A)	9,822	540	114	29	10,505
		93.5%	5.1%	1.1%	0.3%	100.0%
	51-100(B)	2,891	18,410	390	70	21,761
		13.3%	84.6%	1.8%	0.3%	100.0%
	101-150(C)	147	2,014	13,123	262	15,546
		0.9%	13.0%	84.4%	1.7%	100.0%
	150 초과(D)	36	122	638	6,190	6,986
		0.5%	1.7%	9.1%	88.6%	100.0%
	전체	12,896	21,086	14,265	6,551	54,798
		23.5%	38.5%	26.0%	12.0%	100.0%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가구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할 경우 이용 가구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정확한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였음.

○ 첫째, 2018년 6월 및 7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가구 데이터 중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4-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통합데이터	비교불가능	1차정제
54,941	143	54,798

○ 둘째, 가구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였음.

<표 4-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1차정제	가구원증가	가구원감소	2차정제
54,798	68	78	54,652

○ 셋째, 건강보험 유형이 변동한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4-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2차정제	합계	직장 -지역	직장 -혼합	지역 -직장	지역 -혼합	혼합 -직장	혼합 -지역	3차정제
54,652	1,385	455	237	316	119	128	130	53,267

□ 위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53,267 가구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음.

□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환 대안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음.⁵⁾⁶⁾

○ (대안1)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존의 평균소득 구간과 동일하게 50% 이하, 51-100%, 101-150%, 15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2)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0% 이하, 61-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3)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65% 이하, 66-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 (대안 4)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70% 이하, 71-120%, 121-180%, 180% 초과로 구분하였음.

5) 최저건강보험료 적용 등 건강보험료 개편 후 소득분위 하위구간에 있는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저 분위에 있는 구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

6) 또한 평균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였음(평균소득 10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평균소득 150% 이하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안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79.6%, 집단 B는 74.6%, 집단 C는 67.2%, 집단 D는 94.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0.4%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2.4%, 하향하는 비율이 0.6%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0.4%, 하향하는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5.8%로 나타났다.

<표 4-1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2,170	3,118	0	0	15,288
		79.6%	20.4%	0.0%	0.0%	100.0%
	51-60(B)	147	17,066	5,672	0	22,885
		0.6%	74.6%	24.8%	0.0%	100.0%
	61-80(C)	0	295	8,214	3,714	12,223
		0.0%	2.4%	67.2%	30.4%	100.0%
	80 초과(D)	0	0	166	2,705	2,871
		0.0%	0.0%	5.8%	94.2%	100.0%
전체		12,317	20,479	14,052	6,419	53,267
		23.1%	38.4%	26.4%	12.1%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81.2%, 집단 B는 71.7%, 집단 C는 67.0%, 집단 D는 95.4%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8.8%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7.9%, 하향하는 비율이 0.5%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30.9%, 하향하는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4.6%로 나타났다.

<표 4-1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848	1,816	0	0	9,664
		81.2%	18.8%	0.0%	0.0%	100.0%
	51-60(B)	83	12,163	4,729	0	16,975
		0.5%	71.7%	27.9%	0.0%	100.0%
	61-80(C)	0	198	6,562	3,030	9,790
		0.0%	2.0%	67.0%	30.9%	100.0%
	80 초과(D)	0	0	87	1,803	1,890
		0.0%	0.0%	4.6%	95.4%	100.0%
전체		7,931	14,177	11,378	4,833	38,319
		20.7%	37.0%	29.7%	12.6%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76.8%, 집단 B는 85.7%, 집단 C는 70.6%, 집단 D는 93.6%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3.3%, 하향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7.2%, 하향하는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6.4%로 나타났다.

<표 4-1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3,731	1,125	0	0	4,856
		76.8%	23.2%	0.0%	0.0%	100.0%
	51-60(B)	42	3,672	571	0	4,285
		1.0%	85.7%	13.3%	0.0%	100.0%
	61-80(C)	0	26	813	313	1,152
		0.0%	2.3%	70.6%	27.2%	100.0%
	80 초과(D)	0	0	20	291	311
		0.0%	0.0%	6.4%	93.6%	100.0%
전체		3,773	4,823	1,404	604	10,604
		35.6%	45.5%	13.2%	5.7%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77.0%, 집단 B는 75.8%, 집단 C는 65.6%, 집단 D는 91.2%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3.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2.9%, 하향하는 비율이 1.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9.0%, 하향하는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8.8%로 나타났다.

<표 4-1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50 이하(A)	51-60(B)	61-80(C)	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591	177	0	0	768
		77.0%	23.0%	0.0%	0.0%	100.0%
	51-60(B)	22	1,231	372	0	1,625
		1.4%	75.8%	22.9%	0.0%	100.0%
	61-80(C)	0	71	839	371	1,281
		0.0%	5.5%	65.5%	29.0%	100.0%
	80 초과(D)	0	0	59	611	670
		0.0%	0.0%	8.8%	91.2%	100.0%
전체		613	1,479	1,270	982	4,344
		14.1%	34.0%	29.2%	22.6%	100.0%

□ 대안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97.9%, 집단 B는 92.0%, 집단 C는 81.7%, 집단 D는 76.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1%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6.0%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표 4-1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4,962	326	0	0	15,288
		97.9%	2.1%	0.0%	0.0%	100.0%
	51-60(B)	1,251	21,064	570	0	22,885
		5.5%	92.0%	2.5%	0.0%	100.0%
	61-80(C)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0%
	80 초과(D)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0%
전체		16,213	23,349	11,215	2,490	53,267
		30.4%	43.8%	21.1%	4.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8.1%, 집단 B는 92.4%, 집단 C는 82.9%, 집단 D는 79.3%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3.0%, 하향하는 비율이 4.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0.7%로 나타났다.

<표 4-2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482	182	0	0	9,664
		98.1%	1.9%	0.0%	0.0%	100.0%
	51-60(B)	790	15,684	501	0	16,975
		4.7%	92.4%	3.0%	0.0%	100.0%
	61-80(C)	0	1,443	8,116	231	9,790
		0.0%	14.7%	82.9%	2.4%	100.0%
	80 초과(D)	0	4	387	1,499	1,890
		0.0%	0.2%	20.5%	79.3%	100.0%
전체		10,272	17,313	9,004	1,730	38,319
		26.8%	45.2%	23.5%	4.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7.4%, 집단 B는 91.3%, 집단 C는 78.3%, 집단 D는 77.5%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0%, 하향하는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표 4-21>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4,731	125	0	0	4,856
		97.4%	2.6%	0.0%	0.0%	100.0%
	51-60(B)	331	3,911	43	0	4,285
		7.7%	91.3%	1.0%	0.0%	100.0%
	61-80(C)	0	223	902	27	1,152
		0.0%	19.4%	78.3%	2.3%	100.0%
	80 초과(D)	0	0	70	241	311
		0.0%	0.0%	22.5%	77.5%	100.0%
전체		5,062	4,259	1,015	268	10,604
		47.7%	40.2%	9.6%	2.5%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7.5%, 집단 B는 90.4%, 집단 C는 75.2%, 집단 D는 69.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2.5%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6%, 하향하는 비율이 8.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31.0%로 나타났다.

<표 4-22>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60 이하(A)	6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49	19	0	0	768
		97.5%	2.5%	0.0%	0.0%	100.0%
	51-60(B)	130	1,469	26	0	1,625
		8.0%	90.4%	1.6%	0.0%	100.0%
	61-80(C)	0	288	963	30	1,281
		0.0%	22.5%	75.2%	2.3%	100.0%
	80 초과(D)	0	1	207	462	670
		0.0%	0.1%	30.9%	69.0%	100.0%
전체		879	1,777	1,196	492	4,344
		20.2%	40.9%	27.5%	11.3%	100.0%

□ 대안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5.4%, 집단 C는 81.7%, 집단 D는 76.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12.1%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6.0%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표 4-23>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5,288	0	0	0	15,288
		100.0%	0.0%	0.0%	0.0%	100.0%
	51-60(B)	2,779	19,536	570	0	22,885
		12.1%	85.4%	2.5%	0.0%	100.0%
	61-80(C)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0%
	80 초과(D)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0%
전체		18,067	21,495	11,215	2,490	53,267
		33.9%	40.4%	21.1%	4.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6.1%, 집단 C는 82.9%, 집단 D는 79.3%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3.0%, 하향하는 비율이 11.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0.7%로 나타났다.

<표 4-24>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664	0	0	0	9,664
		100.0%	0.0%	0.0%	0.0%	100.0%
	51-60(B)	1,865	14,609	501	0	16,975
		11.0%	86.1%	3.0%	0.0%	100.0%
	61-80(C)	0	1,443	8,116	231	9,790
		0.0%	14.7%	82.9%	2.4%	100.0%
	80 초과(D)	0	4	387	1,499	1,890
		0.0%	0.2%	20.5%	79.3%	100.0%
전체		11,529	16,056	9,004	1,730	38,319
		30.1%	41.9%	23.5%	4.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3.6%, 집단 C는 78.3%, 집단 D는 77.5%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0%, 하향하는 비율이 15.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표 4-25>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4,856	0	0	0	4,856
		100.0%	0.0%	0.0%	0.0%	100.0%
	51-60(B)	661	3,581	43	0	4,285
		15.4%	83.6%	1.0%	0.0%	100.0%
	61-80(C)	0	223	902	27	1,152
		0.0%	19.4%	78.3%	2.3%	100.0%
	80 초과(D)	0	0	70	241	311
		0.0%	0.0%	22.5%	77.5%	100.0%
전체		5,517	3,804	1,015	268	10,604
		52.0%	35.9%	9.6%	2.5%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82.8%, 집단 C는 75.2%, 집단 D는 69.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6%, 하향하는 비율이 15.6%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31.0%로 나타났다.

<표 4-26>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3,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3)				전체
		65 이하(A)	66-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68	0	0	0	768
		100.0%	0.0%	0.0%	0.0%	100.0%
	51-60(B)	253	1,346	26	0	1,625
		15.6%	82.8%	1.6%	0.0%	100.0%
	61-80(C)	0	288	963	30	1,281
		0.0%	22.5%	75.2%	2.3%	100.0%
	80 초과(D)	0	1	207	462	670
		0.0%	0.1%	30.9%	69.0%	100.0%
전체		1,021	1,635	1,196	492	4,344
		23.5%	37.6%	27.5%	11.3%	100.0%

□ 대안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5.6%, 집단 C는 81.7%, 집단 D는 76.7%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2.5%, 하향하는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6.0%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표 4-27>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15,288	0	0	0	15,288
		100.0%	0.0%	0.0%	0.0%	100.0%
	51-60(B)	5,007	17,308	570	0	22,885
		21.9%	75.6%	2.5%	0.0%	100.0%
	61-80(C)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0%
	80 초과(D)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0%
전체		20,295	19,267	11,215	2,490	53,267
		38.1%	36.2%	21.1%	4.7%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7.1%, 집단 C는 82.9%, 집단 D는 79.3%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3.0%, 하향하는 비율이 19.9%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4%, 하향하는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0.7%로 나타났다.

<표 4-28>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9,664	0	0	0	9,664
		100.0%	0.0%	0.0%	0.0%	100.0%
	51-60(B)	3,385	13,089	501	0	16,975
		19.9%	77.1%	3.0%	0.0%	100.0%
	61-80(C)	0	1,443	8,116	231	9,790
		0.0%	14.7%	82.9%	2.4%	100.0%
	80 초과(D)	0	4	387	1,499	1,890
		0.0%	0.2%	20.5%	79.3%	100.0%
전체		13,049	14,536	9,004	1,730	38,319
		34.1%	37.9%	23.5%	4.5%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0.0%, 집단 C는 78.3%, 집단 D는 77.5%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0%, 하향하는 비율이 29.0%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표 4-29>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4,856	0	0	0	4,856
		100.0%	0.0%	0.0%	0.0%	100.0%
	51-60(B)	1,241	3,001	43	0	4,285
		29.0%	70.0%	1.0%	0.0%	100.0%
	61-80(C)	0	223	902	27	1,152
		0.0%	19.4%	78.3%	2.3%	100.0%
	80 초과(D)	0	0	70	241	311
		0.0%	0.0%	22.5%	77.5%	100.0%
전체		6,097	3,224	1,015	268	10,604
		57.5%	30.4%	9.6%	2.5%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100%, 집단 B는 75.0%, 집단 C는 75.2%, 집단 D는 69.0%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없음.
- 집단 B는 상향하는 비율이 1.6%, 하향하는 비율이 23.4%로 나타났다.
- 집단 C는 상향하는 비율이 2.3%, 하향하는 비율이 22.5%로 나타났다.
- 집단 D는 하향하는 비율이 31.0%로 나타났다.

<표 4-30> 건강보험료 개편 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4,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4)				전체
		70 이하(A)	71-120(B)	121-180(C)	180 초과(D)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A)	768	0	0	0	768
		100.0%	0.0%	0.0%	0.0%	100.0%
	51-60(B)	381	1,218	26	0	1,625
		23.4%	75.0%	1.6%	0.0%	100.0%
	61-80(C)	0	288	963	30	1,281
		0.0%	22.5%	75.2%	2.3%	100.0%
	80 초과(D)	0	1	207	462	670
		0.0%	0.1%	30.9%	69.0%	100.0%
전체		1,149	1,507	1,196	492	4,344
		26.5%	34.7%	27.5%	11.3%	100.0%

제 5 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석

제1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제2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석 <

<

제1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6월과 7월 모두 4인 가구의 비율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비율이 22.8%로 높게 나타났음.

<표 5-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구원수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인	106	2.9	2.9	1인	108	2.9	2.9
2인	160	4.3	7.2	2인	159	4.3	7.2
3인	842	22.8	29.9	3인	842	22.8	30.0
4인	1,433	38.7	68.7	4인	1,432	38.7	68.7
5인	559	15.1	83.8	5인	560	15.1	83.8
6인	228	6.2	89.9	6인	227	6.1	89.9
7인	55	1.5	91.4	7인	55	1.5	91.4
8인	186	5.0	96.5	8인	187	5.1	96.5
9인	44	1.2	97.6	9인	44	1.2	97.7
10인	87	2.4	100.0	10인	86	2.3	100.0
합계	3,700	100.0		합계	3,700	100.0	
평균	4.32			평균	4.32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 비율이 6월 69.0%, 7월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6월 22.5%, 7월 22.7%, 혼합가입자 유형은 6월 8.6%, 7월 8.6%로 나타났음.

<표 5-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 가입유형 현황

6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7월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직장	2,552	69.0	69.0	직장	2,544	68.8	68.8
지역	831	22.5	91.4	지역	839	22.7	91.4
혼합	317	8.6	100.0	혼합	317	8.6	100.0
합계	3,700	100.0		합계	3,700	100.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15,784원, 중위값은 107,79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675,260원으로 나타났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7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08,810원, 중위값은 99,840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909,110원으로 나타났다.

<표 5-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현황

구분	N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6월 건강보험료	3,700	115,784	107,790	0	675,260
7월 건강보험료	3,700	108,810	99,840	0	909,11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14,269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675,26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102,084원, 최솟값은 3,660원, 최댓값은 372,64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63,889원, 최솟값은 17,040원, 최댓값은 653,940원으로 나타났다.

<표 5-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6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2,552	114,269	67,664.67	0	675,260
지역	831	102,084	66,304.99	3,660	372,640
혼합	317	163,889	92,647.82	17,040	653,940
합계	3,700	115,784	71,549.76	0	675,260

○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 115,464원,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909,11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 72,634원, 최솟값은 13,100원, 최댓값은 355,860원으로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 151,159원, 최솟값은 18,330원, 최댓값은 675,130원으로 나타났음.

○ 6월과 비교하면 지역 및 혼합가입자 유형 유형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현황(7월)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2,544	115,464	70,367.07	0	909,110
지역	839	72,634	64,827.79	13,100	355,860
혼합	317	151,159	92,870.47	18,330	675,130
합계	3,700	108,810	74,659.10	0	909,11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6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100% 이하(A)의 비율이 79.5%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도 평균소득100% 이하(A)의 비율이 87.4%로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100% 이하(A)의 비율이 59.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 5-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6월)

	100% 이하(A)	100% 초과(B)	전체
직장	2,029	523	2,552
	79.5%	20.5%	100.0%
지역	726	105	831
	87.4%	12.6%	100.0%
혼합	187	130	317
	59.0%	41.0%	100.0%
전체	2,942	758	3,700
	79.5%	20.5%	100.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별 7월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100% 이하(A)의 비율이 78.9%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100% 이하(A)의 비율이 91.9%로 높게 나타났고, 혼합가입자 유형은 평균소득 100% 이하(A)의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가입유형별 본인부담 등급 현황(7월)

	100% 이하(A)	100% 초과(B)	전체
직장	2,007	537	2,544
	78.9%	21.1%	100.0%
지역	771	68	839
	91.9%	8.1%	100.0%
혼합	202	115	317
	63.7%	36.3%	100.0%
전체	2,980	720	3,700
	80.5%	19.5%	100.0%

제2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평균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00% 이하 이용 가구는 2,942가구에서 2,980가구로 증가(+38가구)하였고, 100% 초과 이용 가구는 758가구에서 720가구로 감소(-38가구)하였음.

<표 5-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평균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이하 (A)	2,942	79.5	79.5	100이하 (A)	2,980	80.5	80.5
100초과 (B)	758	20.5	100.0	100초과 (B)	720	19.5	100.0
합계	3,700	100.0		합계	3,700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00% 이하 이용 가구는 2,636가구에서 2,711가구로 증가(+75가구)하였고, 100% 초과 이용 가구는 1,064가구에서 989가구로 감소(-75가구)하였음.

<표 5-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현황(기준중위소득)

개편 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개편 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이하 (A)	2,636	71.2	71.2	100이하 (A)	2,711	73.3	73.3
100초과 (B)	1,064	28.8	100.0	100초과 (B)	989	26.7	100.0
합계	3,700	100.0		합계	3,700	100.0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평균소득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 A에서 집단 B로 38가구(1.3%)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A로 76가구(10.0%)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0>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평균소득)

		개편 후		전체
		100 이하(A)	100 초과(B)	
개편 전	100 이하(A)	2,904	38	2,942
		98.7%	1.3%	100.0%
	100 초과(B)	76	682	758
		10.0%	90.0%	100.0%
전체		2,980	720	3,700
		80.5%	19.5%	100.0%

- 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하여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의 본인부담 등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 A에서 집단 B로 39가구(1.5%)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B에서 집단 A로 114가구(10.7%)가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1>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 등급 변화(기준중위소득)

		개편 후		전체
		100 이하(A)	100 초과(B)	
개편 전	100 이하(A)	2,597	39	2,636
		98.5%	1.5%	100.0%
	100 초과(B)	114	950	1,064
		10.7%	89.3%	100.0%
전체		2,711	989	3,700
		73.3%	26.7%	100.0%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할 경우 이용자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정확한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였음.

○ 첫째, 2018년 6월 및 7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자 데이터 중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5-12> 1차 데이터 정제 결과

통합데이터	비교불가능	1차정제
3,864	164	3,700

○ 둘째, 가구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였음.

<표 5-13> 2차 데이터 정제 결과

1차정제	가구원증가	가구원감소	2차정제
3,700	4	8	3,688

○ 셋째, 건강보험 유형이 변동한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표 5-14> 3차 데이터 정제 결과

2차정제	합계	직장 -지역	직장 -혼합	지역 -직장	지역 -혼합	혼합 -직장	혼합 -지역	3차정제
3,688	104	39	10	29	9	12	5	3,584

□ 위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3,584 가구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음.

□ 정확한 검토를 위해 대안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대안 1)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존의 평균소득 구간과 동일하게 100%로 구분하였음.

○ (대안 2) 평균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120%로 구분하였음.

□ 대안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88.6%, 집단 B는 91.1%로 나타났음.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1.4%로 나타났음.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8.9%로 나타났음.

<표 5-15>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1)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2,555	330	2,885
		88.6%	11.4%	100.0%
	100 초과(B)	62	637	699
		8.9%	91.1%	100.0%
전체		2,617	967	3,584
		73.0%	27.0%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85.6%, 집단 B는 91.3%로 나타났음.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4.4%로 나타났음.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8.7%로 나타났음.

<표 5-16>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1,683	284	1,967
		85.6%	14.4%	100.0%
	100 초과(B)	46	484	530
		8.7%	91.3%	100.0%
전체		1,729	768	2,497
		69.2%	30.8%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6.6%, 집단 B는 87.3%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12.7%로 나타났다.

<표 5-17>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703	25	728
		96.6%	3.4%	100.0%
	100 초과(B)	8	55	63
		12.7%	87.3%	100.0%
전체		711	80	791
		89.9%	10.1%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88.9%, 집단 B는 92.5%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표 5-18>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1,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1)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169	21	190
		88.9%	11.1%	100.0%
	100 초과(B)	8	98	106
		7.5%	92.5%	100.0%
전체		177	119	296
		59.8%	40.2%	100.0%

□ 대안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집단 A는 99.0%, 집단 B는 75.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24.9%로 나타났다.

<표 5-19>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2)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2,857	28	2,885
		99.0%	1.0%	100.0%
	100 초과(B)	174	525	699
		24.9%	75.1%	100.0%
전체		3,031	553	3,584
		84.6%	15.4%	100.0%

- 가입자 유형별로 등급 변동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8.8%, 집단 B는 74.5%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2%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25.5%로 나타났다.

<표 5-20>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직장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1,943	24	1,967
		98.8%	1.2%	100.0%
	100 초과(B)	135	395	530
		25.5%	74.5%	100.0%
전체		2,078	419	2,497
		83.2%	16.8%	100.0%

○ 지역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9.7%, 집단 B는 69.8%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0.3%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30.2%로 나타났다.

<표 5-21>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지역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726	2	728
		99.7%	0.3%	100.0%
	100 초과(B)	19	44	63
		30.2%	69.8%	100.0%
전체		745	46	791
		94.2%	5.8%	100.0%

○ 혼합가입자 유형의 경우 등급 변동이 없는 집단 A는 98.9%, 집단 B는 81.1%로 나타났다.

- 집단 A는 상향하는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 집단 B는 하향하는 비율이 18.9%로 나타났다.

<표 5-22> 건강보험료 개편 전후 본인부담금 등급 변동(대안 2, 혼합가입자 유형)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대안 2)		전체
		120 이하(A)	120초과(B)	
개편 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A)	188	2	190
		98.9%	1.1%	100.0%
	100 초과(B)	20	86	106
		18.9%	81.1%	100.0%
전체		208	88	296
		70.3%	29.7%	100.0%

제 6 장 결론

□ 본 연구의 대상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임.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임.

○ 본 연구의 목적은 (1)기준중위소득 변환, (2)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3)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표 6-1> 연구 주제와 내용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건강보험료 개편 결과 분석	-2018년 6월~7월 변동현황 분석
소득적용방식 변환	-월평균 소득 → 기준중위소득 변환
급여기준선 설정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 시 새로운 기준선 설정

1.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장애인활동지원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50/100/150

○ 기존 월평균 5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50%로 변동 시 2,897명(20.0%) 상향, 100%이하는 4,751명 상향(20.8%), 150%이하는 4,759명(31.4%) 상향됨.

○ 정책개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선의 조정 필요

<표 6-2>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기준 중위소득				전체
		50 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1,558	2,897	0	0	14,455
		80.0%	20.0%	0.0%	0.0%	100%
	100	98	18,031	4,751	0	22,880
		0.4%	78.8%	20.8%	0.0%	100%
	150	0	232	10,174	4,759	15,165
		0.0%	1.5%	67.1%	31.4%	100%
	150 초과	0	0	199	15,509	15,708
		0.0%	0.0%	1.3%	98.7%	100%
전체		11,656	21,160	15,124	20,268	68,208
		17.1%	31.0%	22.2%	29.7%	100%

□ (조정안 1)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0/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293명(2%) 상향, 100% 이하는 396명(1.7%) 상향,
150%이하는 399명(2.6%) 상향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강함.

<표 6-3>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기준 중위소득				전체
		60 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162	293	0	0	14,455
		98.0%	2.0%	0.0%	0.0%	100%
	100	1,219	21,265	396	0	22,880
		5.3%	92.9%	1.7%	0.0%	100%
	150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
	150 초과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
전체		15,381	24,390	14,335	14,102	68,208
		22.6%	35.8%	21.0%	20.7%	100%

□ (조정안 2)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5/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65%에 공존하며, 100% 이하는 396명(1.7%) 상향, 150%이하는 399명(2.6%) 상향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큼.

<표 6-4>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기준중위소득				전체
		65 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455	0	0	0	14,455
		100.0%	0.0%	0.0%	0.0%	100%
	100	2,663	19,821	396	0	22,880
		11.6%	86.6%	1.7%	0.0%	100%
	150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
	150 초과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
전체		17,118	22,653	14,335	14,102	68,208
		25.1%	33.2%	21.0%	20.7%	100%

□ (조정안 3)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70/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70%에 공존하며, 100% 이하의 하향은 4,632명(20.2%)로 크게 나타났음.

○ 조정안에 따라 120% 이하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5>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기준중위소득				전체
		70 이하	71-120	121-180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455	0	0	0	14,455
		100.0%	0.0%	0.0%	0.0%	100%
	100	4,632	17,852	396	0	22,880
		20.2%	78.0%	1.7%	0.0%	100%
	150	0	2,824	11,942	399	15,165
		0.0%	18.6%	78.7%	2.6%	100%
	150 초과	0	8	1,997	13,703	15,708
		0.0%	0.1%	12.7%	87.2%	100%
전체		19,087	20,684	14,335	14,102	68,208
		28.0%	30.3%	21.0%	20.7%	100%

□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환한 새로운 조정안들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의 건강보험료는 하향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변동은 아니지만 본인부담금 등급이 하향하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및 재산보유자의 등급전환이 크게 나타남.

○ 빈도는 높지 않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등급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기존 월평균 50% 이하계층의 기준중위 급여기준선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월평균(50%, 100%, 150%)에서 중위소득(60%, 120%, 180%)으로 변환 시 소득 파악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급여선(60%, 65%, 70%) 판단 필요

2.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자(2,072명) 빈도가 증가하였고, 150% 이하 이용자(1,576명) 규모는 감소하였음.

<표 6-6>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6월 건강보험료 기준				7월 건강보험료 기준			차이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50 이하	9,641	17.6	17.6	11,713	21.4	21.4	+2,072
100	21,631	39.5	57.1	21,676	39.6	60.9	+45
150	16,292	29.7	86.8	14,716	26.9	87.8	-1,576
150이상	7,234	13.2	100.0	6,693	12.2	100.0	-541
합계	54,798	100.0		54,798	100.0		0

□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50/100/150

- 기존 월평균 5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50%로 변동 시 3,118명(20.4%) 상향, 100%이하는 5,672명 상향(24.8%), 150%이하는 3,714명(30.4%) 상향됨.
- 정책개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선의 조정 필요

<표 6-7>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기준 중위소득				전체
		50 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2,170	3,118	0	0	15,288
		79.6%	20.4%	0.0%	0.0%	100%
	100	147	17,066	5,672	0	22,885
		0.6%	74.6%	24.8%	0.0%	100%
	150	0	295	8,214	3,714	12,223
		0.0%	2.4%	67.2%	30.4%	100%
	150 초과	0	0	166	2,705	2,871
		0.0%	0.0%	5.8%	94.2%	100%
전체		12,317	20,479	14,052	6,419	53,267
		23.1%	38.4%	26.4%	12.1%	100%

□ (조정안 1)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0/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326명(2.1%) 상향, 100% 이하는 570명(2.5%) 상향,
150%이하는 288명(2.4%) 상향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강함.

<표 6-8>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기준 중위소득				전체
		60 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962	326	0	0	15,288
		97.9%	2.1%	0.0%	0.0%	100%
	100	1,251	21,064	570	0	22,885
		5.5%	92.0%	2.5%	0.0%	100%
	150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
	150 초과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
전체		16,213	23,349	11,215	2,490	53,267
		30.4%	43.8%	21.1%	4.7%	100%

□ (조정안 2)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65/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65%에 공존하며, 100% 이하는 570명(2.5%) 상향, 2,779명(12.1%)는 하향함.

<표 6-9>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기준중위소득				전체
		65 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5,288	0	0	0	15,288
		100.0%	0.0%	0.0%	0.0%	100%
	100	2,779	19,536	570	0	22,885
		12.1%	85.4%	2.5%	0.0%	100%
	150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
	150 초과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
전체		18,067	21,495	11,215	2,490	53,267
		33.9%	40.4%	21.1%	4.7%	100%

□ (조정안 3) 전국가구평균 50/100/150 → 기준중위 70/120/180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70%에 공존하며, 100% 이하의 하향은 5,007명(21.9%)로 크게 나타났음. 기존 100%이하 계층의 하향 추세가 큼.

<표 6-10>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기준중위소득				전체
		70 이하	71-120	121-180	18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5,288	0	0	0	15,288
		100.0%	0.0%	0.0%	0.0%	100%
	100	5,007	17,308	570	0	22,885
		21.9%	75.6%	2.5%	0.0%	100%
	150	0	1,954	9,981	288	12,223
		0.0%	16.0%	81.7%	2.4%	100%
	150 초과	0	5	664	2,202	2,871
		0.0%	0.2%	23.1%	76.7%	100%
전체		20,295	19,267	11,215	2,490	53,267
		38.1%	36.2%	21.1%	4.7%	100%

3.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언어발달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0% 이하 이용자(8명) 빈도가 감소하였고, 100% 초과 이용자(11명) 규모는 감소함.

○ 건강보험료 하향이 예측되며, 대상자의 하향 규모 확대가 예측됨.

<표 6-11> 언어발달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6월 건강보험료 기준				7월 건강보험료 기준			차이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50이하	94	19.7	19.7	102	21.3	21.3	8
100	241	50.4	70.1	244	51.0	72.4	3
100초과	143	29.9	100.0	132	27.6	100.0	-(11)
합계	478	100.0		478	100.0		0

□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50/100/100초과

○ 기존 월평균 5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50%로 변동 시 31명(21.1%) 상향, 100%이하는 50명 상향(21%)됨. 이에 비해 하향추세는 낮음.

○ 정책개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선의 조정 필요

<표 6-12>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5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16	31	0	147
		78.9%	21.1%	0.0%	100%
	100	0	188	50	238
		0.0%	79.0%	21.0%	100%
	100 초과	0	7	75	82
		0.0%	8.5%	91.5%	100%
전체		116	226	125	467
		24.8%	48.4%	26.8%	100%

□ (조정안 1)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60/120/120초과

○ 기존 50% 이하 계층은 2명(1.4%) 상향, 100% 이하는 5명(2.1%) 상향하지만, 100% 초과계층은 18명(22%) 하향함.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가 큼.

<표 6-13>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1)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60 이하	120	12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5	2	0	147
		98.6%	1.4%	0.0%	100%
	100	8	225	5	238
		3.4%	94.5%	2.1%	100%
	100 초과	0	18	64	82
		0.0%	22.0%	78.0%	100%
전체		153	245	69	467
		32.8%	52.5%	14.8%	100%

□ (조정안 2)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65/120/120초과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65%에 공존하며, 100% 이하는 5명(2.1%) 상향하지만, 16명(6.7%)는 하향하고, 100% 초과도 18명(22%)가 하향함.

○ 조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4>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2)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65 이하	120	12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7	0	0	147
		100.0%	0.0%	0.0%	100%
	100	16	217	5	238
		6.7%	91.2%	2.1%	100%
	100 초과	0	18	64	82
		0.0%	22.0%	78.0%	100%
전체		163	235	69	467
		34.9%	50.3%	14.8%	100%

□ (조정안 3) 전국가구평균 50/100/100초과 → 기준중위 70/120/120초과

○ 기존 50% 이하 계층은 중위 70%에 공존하며, 100% 이하의 하향은 45명 (18.9%)로 나타났다.

○ 조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5> 언어발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조정안(3)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70 이하	120	120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47	0	0	147
		100.0%	0.0%	0.0%	100%
	100	45	188	5	238
		18.9%	79.0%	2.1%	100%
	100 초과	0	18	64	82
		0.0%	22.0%	78.0%	100%
전체		192	206	69	467
		41.1%	44.1%	14.8%	100%

4.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 방안: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자 소득변화 분석

○ 2018년 6월 대비 7월 기준 기준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00% 이하 이용자 (112명) 빈도가 증가하였고, 100% 초과 이용자는 112명이 감소함.

○ 건강보험료 하향이 예측되며, 대상자의 하향 규모 확대가 예측됨.

<표 6-16>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변화

6월 건강보험료 기준				7월 건강보험료 기준			차이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퍼센트	누적%	빈도
100이하	2,578	69.7	69.7	2,690	72.7	72.7	112
100초과	1,122	30.3	100.0	1,010	27.3	100.0	-(112)
합계	3,700	100.0		3,700	100.0		0

□ (조정안 1) 전국가구평균 100이하/100초과 → 기준중위 100이하/100초과

○ 기존 월평균 100%이하 계층이 중위소득 100%로 변동 시 331명(11.6%) 상향, 100%초과는 67명(9.3%) 하향됨.

○ 정책개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선의 조정 필요

<표 6-1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조정안(1)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100이하	100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2,530	331	2,861
		88.4%	11.6%	100%
	100초과	67	656	723
		9.3%	90.7%	100%
전체		2,597	987	3,584
		72.5%	27.5%	100%

□ (조정안 2) 전국가구평균 100/100초과 → 기준중위 120/120초과

○ 기존 100% 이하 계층은 중위 120%에 2,833명(99%)공존하지만, 28명(1%)는 상향함. 기존 100% 초과는 178명(24.6%) 하향함.

○ 조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적용 조정안(2)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전체
		120이하	120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2,833	28	2,861
		99.0%	1.0%	100%
	100초과	178	545	723
		24.6%	75.4%	100%
전체		3,011	573	3,584
		84.0%	16.0%	100%

5. 주요시사점

□ 건강보험료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

-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인한 문제도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수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향후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함.
- 2차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인 활용이나 새로운 소득 재산 조사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등급 변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지원등급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등급 일시 유예 고려
- 지원등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 민원발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동은 불가피함. 새로운 급여기준은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수급여부 및 지원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감소시키고 제도 변화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수급권한 및 지원등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의 사례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 가구에 대해 기존의 보험료를 일정기간동안 유지시켜 주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비율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지원등급 변동은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의 변동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변경(하향조정)하는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은 장애인활동지원 재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 변경에 따른 세밀한 변동분석이 필요
-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은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측면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의 통합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